



부산여대학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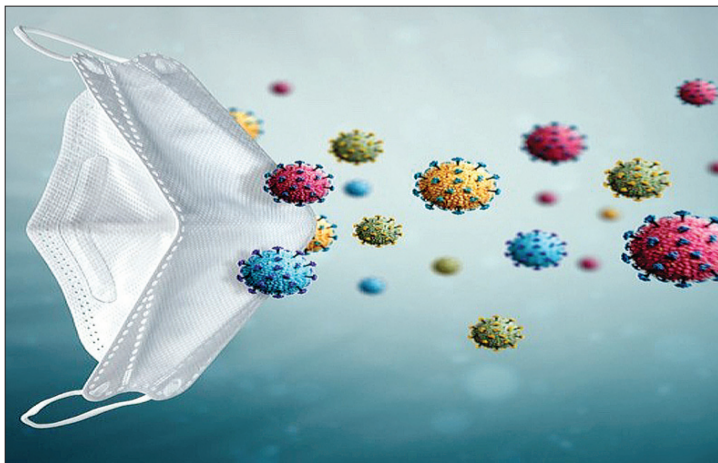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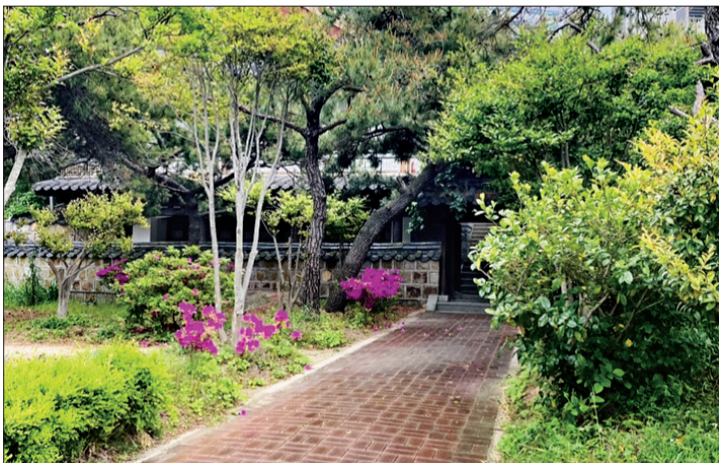
THE BUSAN WOMEN'S COLLEGE PRESS

성실한 사람
창의적인 사람
예절바른 사람

제 244호 2021년 5월 31일 (월)

■ 발행인 정영우 ■ 주간 김정희 ■ 주소 부산광역시 진구 진남로 506(양정동 74) ■ 홈페이지 <http://www.bwc.ac.kr> ■ 전화 051)850-3296(FAX 겸용) ■ 인쇄 국제신문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며 새로운 꿈과 희망을 위하여~~



지면소개

2·3·4·5
학교홍보

6
학교소식

7
코로나19

8·9
교수칼럼

10·11·12
학생칼럼

학과별/시기별 모집인원



■ 수시모집 1차

모집학과	전형구분	입학 정원	정원내 전형			정원의외 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대학자체	대졸 및 전문대졸	농어촌학생	기초생활/ 차상위/ 한부모가족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아동학부	유아교육과 (3년제)	33	13	13	6	1	1	1	
	아동보육과	28	2	4	20	10	1	1	2
	아동스포츠 재활무용과 (3년제)	40	6	4	24	10	2	2	3
관광학부	항공서비스과 (3년제)	45	36	2	1		1	1	
	호텔경영과	27	8	11	3	10	1	1	2
	바리스타과	30	6	12	6	10	1	1	2
	호텔외식조리과	30	9	8	12	10	1	2	4
	호텔제과제빵과	48	25	10	11	10	2	2	4
보건 복지학부	간호학과(4년제)	150	117	15	-	35	1		
	치위생과(3년제)	57	39	10	5	3	2	1	
	안경광학과	28	10	6	4	1		1	1
	보건행정과	28	10	11	4	10	1	1	2
	미용과	90	40	27	21	10	2	2	3
	반려동물과	30	16	5	6	10	1	1	3
	*반려동물과(야간)	25	12	4	6	10	1	1	2
	사회복지계열 ■ 청소년가족복지전공 ■ 사회복지상담전공	50	6	21	20	10	2	2	4
	*■ 사회복지경영전공 (야간)	30	3	12	12	10	1	1	4
	*문헌정보과(야간)	33	10	3	15	10	1	1	4
합계		802	368	178	176	170	22	22	40

- 주)1. 수시1차 모집 지원자 미달 시 수시2차 모집에서 그 결원만큼 포함하여 모집합니다.
- 2. 수시모집 결과 미달된 인원 및 등록포기 인원은 정시모집에 이월하여 모집합니다.
- 3. 오프라인(우편·교내접수)으로 접수한 원서의 수험표는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4. 야간 과정인 *반려동물과(야간), 사회복지계열 *사회복지경영전공(야간), *문헌정보과(야간)는 남자(남학생) 지원이 가능합니다.
- 5. 수시모집 결과 미달된 인원 및 등록포기 인원은 정시모집에 이월하여 모집합니다.

■ 수시모집 2차



모집학과	전형구분	입학 정원	정원내 전형			정원외 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대학자체	대졸 및 전문대졸	농어촌학생	기초생활/ 차상위 /한부모 가족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아동학부	유아교육과(3년제)	33			1				
	아동보육과	28	1		1	5			
	아동스포츠 재활무용과 (3년제)	40	2	1	3	5			
관광학부	항공서비스과(3년제)	45	4	1	1				
	호텔경영과	27	1	2	2	5			
	바리스타과	30	1	3	2	5			
	호텔외식조리과	30			1	5			
	호텔제과제빵과	48	1		1	5			
보건 복지학부	간호학과(4년제)	150	8	2		9			
	치위생과(3년제)	57	2		1	1			
	안경광학과	28	3	2	3	1			
	보건행정과	28	1	1	1	5			
	미용과	90			2	5			
	반려동물과	30	1	1	1	5			
	*반려동물과(야간)	25	1	1	1	5			
	사회복지계열 ■ 청소년가족복지전공 ■ 사회복지상담전공	50	1	1	1	5			
	*■ 사회복지경영전공 (야간)	30	1	1	1	5			
*문헌정보과(야간)	33	1		4	5				
합계	802	29	16	27	76	0	0	0	

- 주)1. 수시1차 모집 지원자 미달 시 수시2차 모집에서 그 결원만큼 포함하여 모집합니다.
- 2. 수시모집 결과 미달된 인원 및 등록포기 인원은 정시모집에 이월하여 모집합니다.
- 3. 오프라인(우편·교내접수)으로 접수한 원서의 수험표는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4. 야간 과정인 *반려동물과(야간), 사회복지계열 *사회복지경영전공(야간), *문헌정보과(야간)는 남자(남학생) 지원이 가능합니다.
- 5. 수시모집 결과 미달된 인원 및 등록포기 인원은 정시모집에 이월하여 모집합니다.

장학금, 4년제 대학 연계편입



■ 신입생 장학금 안내

1) 신입생특별장학금(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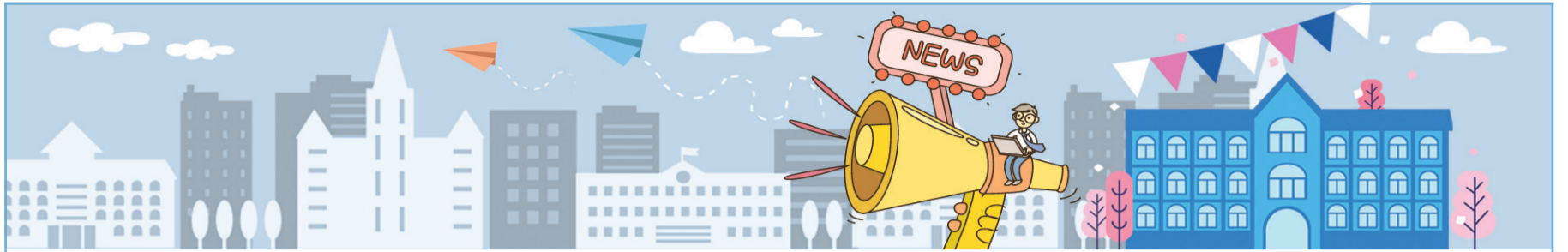
특별장학금 종류	대상자격 및 장학혜택
면학격려장학금	1997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 : 입학금 + 매학기 수업료 20% 졸업 시까지 면제 (간호학과 제외) ※ 단, 직전학기 백분율점수 70점 이상시 지급
대학졸업자장학금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졸업자 : 입학금 + 수업료 20% 졸업 시까지 면제 (간호학과 제외) ※ 대졸자로서 정원내외 지원자 모두 해당됨. 단, 직전학기 백분율 점수 70점 이상시 지급
교수추천장학금	본 대학 교수 추천을 받은 자 : 입학금 면제
농어촌학생장학금	‘농어촌학생’대상자 : 입학금 면제 ※ 정원의특별전형의 농어촌학생 지원 자격 해당자로서 정원내외 지원자 모두 해당됨
자매고교장학금	- 본 대학과 자매고교 결연을 맺은 고교 출신자 : 입학금 면제 - 산,관,학 협동체결 학원출신자 : 입학금 면제 (이수확인서 또는 원서상단 확인도장 필요) - 부산산업학교 1년 이상 과정 이수자 : 입학금 면제 (이수확인서 또는 원서상단 확인도장 필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자’ 대상자 : 입학금 면제 ※ 정원의특별전형의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자 지원 자격 해당자로서 정원내외 지원자 모두 해당됨
부산지역인문계 고교장학금	부산지역 인문계 고교 출신자로서 각 학과별 부산지역 인문계 출신자 중 내신 성적 상위 10%이내 해당자 : 입학금면제
리더십장학금	- 고등학교 총학생회장,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고등학교장 추천자 : 1년간 등록금 전액
경진대회장학금	- 본 대학이 주최한 전국여고생관광서비스경진대회, 전국여고생미용경진대회, 전국여중고생댄스경연대회의 수상자 : 1학년 1학기 등록금 전액~150만원 (대상: 등록금 전액, 금상 : 200만원, 은상 : 180만원, 동상 : 150만원)
혁신인재장학금	본 대학 교수 추천을 받은 자 : 일정금액 지급
신성장인재장학금	본 대학 교수 추천을 받은 자 : 일정금액 지급
희망인재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로서 국가장학금 1유형을 받은 자 : 일정금액 지급

- 주). 1. 신입생 장학금은 중복 지급 불가. 여러 중복항목 중 금액이 높은 항목 1개만 지급됩니다.
 2. 정원의 지원자가 정원내 중복 지원시 정원의 해당 장학금은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3. 2021학년도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라 신입생특별장학금 대상자격 및 장학혜택 등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4. 장학금 문의 : 학생처 ☎ 051-850-3015, 3016) 및 학과사무실
- 2) 교내장학금 : 신입생특별장학금, 경진대회장학금,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 한미음장학금, 복지장학금, 교육보호대상자 장학금(국가유공자장학금, 북한 이탈주민장학금), 교직원직계장학금, 해화학원산하교직원자녀장학금, 교육자녀장학금, 한가족장학금, 다문화가족(외국인)학생장학금, 장애우장학금, 외국어성취장학금, 간부공로장학금, 교내근로장학금, 다춘장학금, 아동보육과 백성장학금
- 3) 교외장학금 : 총동창회장학금, 부산은행장학금, 농협중앙회장학금, 한국다도협회장학금, 교수장학금, 저소득층자녀 부산광역시장학금, 농림축산식품부장학금, 의용소방대장학금, 하림장학금(호텔제과제빵과), 부산광역시 안경사회장학금(안경광학과), 치위생과 산학협력업체장학금, 호텔제과제빵과 산학협력업체장학금, 바리스타전공 산학협력업체장학금, 호텔외식조리과 산학협력업체장학금, 아동미술과 산학협력업체장학금, 보건행정과 산학협력업체장학금, 미용과 산학협력업체 장학금, 유아교육과 산학협력업체장학금, 아동스포츠재활무용과 산학협력업체장학금, 아동보육과 동문회장학금, 호텔 외식조리과 동문회장학금, 사회복지계열 동문회장학금, 미용과 동문회장학금, 국가유공자녀장학금, 북한이탈주민장학금, KRX국민행복재단장학금
- 4)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1유형·2유형, 국가근로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푸른등대장학금, 푸른등대삼성기부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고졸 후학 습자 장학금
- 5) 2020학년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약353만원(총 장학금 약94억5천만원, 2020.4.1. 재학생 2,677명, 2020정보공시 기준)
- 6) 학자금 대출제도 안내 : 한국장학재단 정부학자금 포털사이트(www.kosaf.go.kr) 참조
- 7) 학자금 대출제도 안내 : 한국장학재단 정부학자금 포털사이트(www.kosaf.go.kr) 참조

■ 4년제 대학 연계편입



계열/학과	4년제 대학교 연계 협약 현황		계열/학과	4년제 대학교 연계 협약 현황	
	대학교명	학과명		대학교명	학과명
유아교육과	동아대학교	아동가족학과	호텔경영과	경성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호텔관광경영학전공
아동스포츠 재활무용과	동의대학교	체육학과		동아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동의대학교	레저스포츠태권도학부 레저스포츠학전공		동의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국제관광경영학전공
	동의대학교	레저스포츠태권도학부 태권도학전공		동의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호텔컨벤션경영학전공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동의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외식산업경영학전공	
호텔제과제빵과	경성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외식서비스경영학전공	호텔외식조리과	경성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외식서비스경영학전공
	동아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동아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외식산업경영학전공		동아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항공서비스과	경성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호텔관광경영전공	사회복지계열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호텔컨벤션경영학전공
	경성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외식경영학전공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외식산업경영학전공
	동아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동의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사회복지학전공
	동의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국제관광경영학전공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바리스타과	경성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외식서비스경영학전공	동의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사회복지학전공	
	동의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외식산업경영학전공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헌정보과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산여자대학교 조민정 학생(간호과 4학년) 청년나이팅게일 봉사회 봉사상 수상

부산여자대학교(총장 정영우)는 2020년 12월 21일 간호학과 조민정 학생이 청년 나이팅게일 봉사회로부터 봉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년나이팅게일 봉사상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한 회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부산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정희영 학과장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대학 간호학과 학생이 봉사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대학의 다양한 교육활동 통해 지역사회와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당당하고 멋진 간호학도 양성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보권 산학협력처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산학협력처장 장보권 교수는 2021년 3월 8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시작된 이 행정안전부 주관 행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한국소비자연맹 부산경남 김항란 회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장보권 교수는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등의 교통안전 피켓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였다.

지목받은 참가자가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여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에서 장보권 교수는 (주)한려 구장오 대표, 부산수의사협회 이영락 회장을 지명했다.

장보권 교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어른 모두의 책임”이라면서 많은 시민들이 어린이 보호 최우선 교통문화 정착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낙토스와 산학협력업무협약 체결

우리대학은 ㈜파낙토스(대표 박병운)와 상호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2021년 3월 11일 부산여자대학교에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산업체 및 대학 간의 인적교류 활성화, 학생 실습지도 및 현장실습 장소 제공,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등 상호 협력을 통한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

우리대학은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 동의대학교(총장 한수환), 동의과학대학교(총장 김영도) 사업 참여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1년 3월 11일 부산진구청에서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지역산업 및 사회와 대학의 상생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호교류 및 긴밀한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4개 기관은 - 지역 청년 및 참여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의 취·창업 활성화 업무협력 - 상호간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 상호간 인프라, 기술정보 및 연구자료 제공 - 상호이해와 정보 교류 등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코로나19란?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이 집단 발병하면서 시작된 사태이다. 이후 중국 전역은 물론 주변 아시아 국가와 북미 등으로 감염세가 확산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1월 30일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그러나 이후 전 대륙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해 이탈리아·이란 등에서 감염자가 속출한 것을 시작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가 늘면서 WHO는 3월 11일

사상 세 번째로 팬데믹을 선포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2020년 1월 우리나라를 비롯해 태국과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미국과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등 북미·유럽·오세아니아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 세계로 확산됐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1월 27일 코로나19의 글로벌 수준 위험수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상향 수정한 데 이어, 1월 30일에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Public Health Emer-

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포했다.

여기에 2월에는 이집트와 브라질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도 발생 사례가 나오면서 전 대륙으로의 확산이 확인됐다. 코로나19의 사망자와 감염자 대부분은 초기 중국에 집중됐으나, 이후 일본 요코하마(横浜)항 부두에 해상 격리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의 확진자가 속출하고(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 일본 전 지역에서도 감염경로가 파악

되지 않은 지역 감염자가 계속 나왔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2월 18일부터 대구-경북 지역에서 신천지와 연관된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했고, 이탈리아와 이란에서도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속히 늘어났다. 여기에 프랑스·독일·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가와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속출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갔다. WHO는 3월 11일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자 홍콩독감(1968), 신종플루(2009)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일반국민 행동수칙 10가지]

1. 실내 시설, 밀집된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 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 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업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는 마스크 의무적으로 착용
2.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3. 환기가 안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 자제하기
4.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2m(최소 1m) 거리두기
5.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6.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7.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소독하기
8.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
9.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상증상 확인하기
※ 다양한 주요 증상 :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 증상(오심·구토·설사 등),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 막힘 등
10. 필요하지 않은 여행 자제하기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 ①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기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해요.
- ② 정신건강 전문가 도움받기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힘든 감정 털어놓기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어보세요.
- ④ 자신의 몸과 마음 돌보기
충분한 수면, 운동, 건강한 식사 등으로 정신건강을 지켜요.
- 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관심 기울이기
어린이 수준에 맞추어 감염병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⑥ 격리된 환자 및 가족의 불안감 스트레스 도와주기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혹은 그 가족들의 힘든 감정을 함께 나누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세요.
- ⑦ 의료인과 방역요원 응원하기
감염병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코로나 백신



2020년 전 세계로 확산되며 장기적인 팬데믹 사태로 이어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개발된 백신을 말한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영국), 화이자(미국·독일), 안센(미국), 모더나(미국), 노바백스(미국) 등을 비롯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중국의 시노팜·시노백 등이 개발돼 접종됐거나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같은 백신 종류에 따라 보관 온도와 접종 간격, 접종 횟수, 보관 및 유통 등은 차이가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작용기전

예방접종은 인체의 면역 체계를 훈련시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제거하도록 한다.

예방접종은 우리 몸이 코로나19에 걸리

지 않고 면역을 획득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다.

다양한 종류의 백신이 있지만, 모든 백신은 결국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일부 단백질 부분을 인식하고 반응하여 항체를 만들어 내고, 면역 세포 중 일부는 기억 세포로 남는다. 이후 인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활성화되어 바이러스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합니다. 이러한 기전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줄여주고, 중증 환자 발생이나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 예방접종 후 면역을 획득하기까지 통상 2주 이상이 소요되므로 예방접종 직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걸릴 수 있다. 예방접종 후에 면역 형성과정에서 발열, 피로,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정상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3일 이내에 증상이 사라지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만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없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00% 예방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므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언제 마스크를 벗고, 거리두기를 중단해도 되는지를 결정할 증거가 현재까지 충분하지 않아 코로나19 백신의 예방효과에 대해 더 연구가 필요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더라도 마스크를 써야한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하고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수칙도 지속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입국 시나 확진자 접촉시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국내 백신 접종 종류

아스트라제네카-영국 아스트라제네카사에서 개발한 백신으로, 접종 횟수는 2회이며 접종 간격은 28일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개봉 상태로 영상 2~8℃에서 제조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하다. 개봉 후에는 실온에서는 누적 6시간, 냉장 상태로는 48시간 보관이 가능하나, 안전

한 예방접종을 위해 당일 개봉 백신은 당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화이자-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으로, 보관 및 유통 조건이 까다로워서 초저온 냉동 시스템이 필요하다. 영하 60~90℃에서 6개월간 유통 및 보관할 수 있으나, 2~8℃에서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은 5일에 불과하다. 접종 횟수는 2회이며 접종 간격은 21일이다.

예방접종 후 관리

이상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전 반드시 예진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는 일정 시간(15~30분) 예방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발현 여부를 관찰한다. 이후에도 이상반응의 신속한 인지와 대응을 위해 의료인 신고 외에도 피접종자의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판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보상(치료비, 병간호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하게 된다.

우리고장 '부산'은 왜 <춤>문화가 발달하였을까?



김해성
(아동스포츠재활무용과 학과장)

전라도가서 소리지랑하지 말고 경상도가서 춤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경상도 지역은 예로부터 가야문화와 신라 천년의 문화가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춤의 역사와 전통이 배어있는 곳이다. 그만큼 춤의 고장으로서 많은 춤 명인들이 배출된 지역이다. 조선 시대에는 기녀(妓女)들을 중심으로 춤과 악을 관장하던 기관인 교방이 발달하였고, 교방춤이 활성화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특히 과거 부산의 지명이었던 '동래'는 조선 통신사들을 위한 연행로(燕行路)로서 대일 외교 관문의 기능을 하며 일본에서 오는 사신들을 접대하기 위해 교방을 두었기에 교방춤이 자연스럽게 발달하였던 곳이다.

또한 낙동강을 중심으로 동편인 수영과 동래에 탈춤인 <야류> 즉 <들놀음>이 발달하였으므로 기방춤과 같은 예술춤과 탈춤 그리고 <동래학춤>과 같은 지역색이 강한

향토춤이 함께 발달한 곳이 부산이다. <동래고무(북춤)>, <동래학춤>, <동래한량춤>과 <수영야류>와 <동래야류>의 탈춤 그리고 <부산농악>의 풍물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춤과 향토춤들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3호인 <동래학춤>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대학이 전수학교로 지정되어 전승을 해 오고 있는 종목이자 아동스포츠재활무용과 학생들이 전수학생으로 춤을 전수받고 있다.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축제』에서 '은상'을 수상하였고 『부산 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대회에 출전하여 부산의 문화재 <동래학춤>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대학의 이미지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경상도 지역이 춤의 고장으로 이름나게 된 데는 탈춤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경상도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탈춤계통의 춤의 종류는 총 9종이며, 이중 6종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부산은 '국가문화재'로 <동래야류>와 <수영야류>가 있다. 반면에 전라도지역은 현재까지 탈춤 종목의 문화재 춤은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로 전라도 지역은 탈춤 보다는 농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전라도지역이 춤보다는 악과 소리가 발달하였고, 탈춤은 소리 대신에 춤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전라도지역에서는 탈춤이 농악의 일부분으로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전승이 약해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오늘날까지 부산이 한국춤의 중심지 역할



▲아동스포츠재활무용과 학생들의 동래학춤 공연

을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인으로서 6.25 한국전쟁을 꼽을 수 있다. 한국전쟁 당시에 부산은 임시수도로서 조선의 마지막 무동(舞童)이었던 김전흥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예술인들이 부산으로 모여들었고, 특히 1951년 국립국악원이 최초로 부산에서 설립된 후 서울로 이전하여 오늘날 대한민국 국악계의 핵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당시 전국에서 피난 온 많은 무용가들이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지도하였고, 한국무용계의 거목인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 예능보유자를 역임한 이매방선생님과 부산의 명무이자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14호 <동래한량춤> 예능보유자인 김진홍 선생님 등은 군예대(군대 예술단)에서 위문공연을 하며 공연활동을 이어나갔다. 김진홍 선생님은 필자의 스승이기도 하다. 환도와 함께 일부 무용가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신무

용의 대가인 황무봉 선생님과 같은 진류한 무용가들이 부산무용계를 이끌어 오면서 부산은 한국춤의 성지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산춤은 그동안 세월의 흔적 속에서 기방춤을 중심으로 한 예술춤과 탈춤 그리고 덧배기춤을 위주로 한 향토춤들이 서로 견인차적인 역할을 하며 발전해 왔다. 천년역사의 신라문화와 가야문화가 토대인 부산의 춤들은 더 이상 과거의 유물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전통문화이자 미래의 부산춤을 견인할 문화 창조의 자원으로 "경상도는 춤 전라도는 소리"라는 명제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갈 소중한 자산으로서 전승·보존되어야 할 가치 있는 예술이다. 이러한 부산춤을 학습하고 이어나가는 아동스포츠재활무용과의 무용전공 학생들 또한 부산의 소중한 춤문화 지킴이이자 훌륭한 예술가로서 성장하리라 본다.

파나마 게이샤커피



박보근
(바리스타과 학과장)

현존하는 스페셜티 커피 중 최고의 커피를 파나마 게이샤라고 하는 데는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월드바리스타 챔피언이 된 한국인 바리스타도 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하였다.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면 소비국과 생산국에서 그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커피 중에서 최고의 커피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파나마는 아메리카대륙의 가운데(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로 인구는 424만명(2020년), 1인당 국민소득은 1만4090달러(2020년 GNP)이다. 파나마 커피재배의 시작은 1917년에 완성된 파나마운하를 건설하기 위해 파나마로 이주해 온 엔지니어와 매니저들 이었다.

지금까지 알려져 온 파나마 게이샤 커피의 루트는 1931년 에티오피아 남서부 게샤(영국의 외교관 커피의 샘플 수집) → 1932년 에티오피아(커피 실험연구실)에서 케냐(커피 실험연구실)로 → 1936년 탄자니아(커피 실험연구실) → 1956년 코스타리카(커피 실험연구실, 농업 관리)로 → 1960년대 파나마로(←농림부 직원 프란시스코 세라친 질병에 강한 나무 샘플) 과약을 하고 있다.

파나마 게이샤 커피의 최초의 선두주자는 에스메랄다(Hacienda La Esmeralda)이다. 에스메랄다 농장은 파나마 보케테(1999년 포춘지 은퇴해서 가장 살기 좋은 다섯 곳 중의 한 곳)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해발 1,005m에서 1,524m의 범위에 걸쳐 있다. 이 농장이 위치한 팔미라(Palmira) 지역은 파나마의 국립공원 일부로 열대의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농장의 면적은 약 134ha이다. 농장의 시작은 1967년 루돌프 피터슨이 파나마의 팔미라(Palmira)지역에 농장을 구입하였고, 그의 아들 프라이스 피터슨이 물려받았다. 지금은 차남인 다니엘 피터슨과 누나 레이첼이 커피나무를 직접 기르고 생산을 하고 있다.

에스메랄다 게이샤 커피의 특징은 꽃과 감귤의 향이 절묘하게 배합되어 있고, 재스민, 복숭아, 베르가못향, 상큼한 산미의 맛이 있으며, 2006년 미국 마운틴 커피에서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단 할리가 '마치 컵 안에서 신의 얼굴을 본 것 같았다' 하여 전 세계에 알려졌다.



▲엄정진 라메아트 월드챔피언

이 당시의 생두 가격은 2006년 에스메랄다 게이샤 생두 1파운드(약 453g)는 50달러로 다른 스페셜티 커피의 40배이고, 2007년 에스메랄다 게이샤 생두 1파운드(약 453g)는 130달러로 다른 고급 스페셜티 커피가 2달러이었다. 에스메랄다 게이샤 생두의 최고의 가격은 2013년 1파운드(약 453g)가 350.25달러로 경매에서 거래가 되었다. 2020년 베스트 오브 파나마 경매에서 소피아 농장의 게이샤가 1파운드(약 453g)에 1300달러에 거래가 되면서 또 한 번 최고가를 갱신하였다. 한국에서도 스페셜티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에서 파나마 게이샤커피를 마실 수 있다.



▲커피 커빙 준비

관계를 읽는 시간



김경남
(간호학과 학과장)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점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사회경험이 많거나 적거나 다들 공통적인 고민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적정선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것이다. 나이가 적어도 관계의 바운더리를 잘 형성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사회경험이 많거나 나이가 많아도 관계의 바운더리가 약한 학생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 필요한 바운더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사람은 언제 태어날까? 정상적인 경우는 최종 월경주기의 첫째 날부터 약 280일, 40주 후에 태어난다. 통상 37주 이전에 출산하는 경우를 조산이라고 하고 42주 이후에 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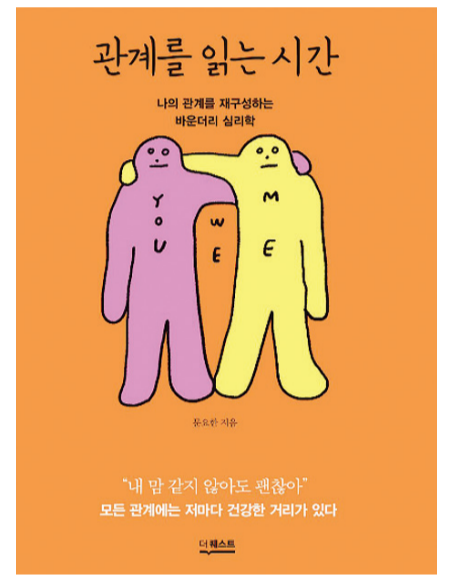
하는 경우를 만산이라고 한다.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37주 이전에 태어나면 미숙아, 42주 이후에 태어나면 과숙아이다. 임신주수가 짧을수록 출생시 위험성이 증가하고 발달상의 문제를 보인다. 발달이 덜 된 상태에서 너무 빨리 태어나면 심한 경우 인큐베이터에서 집중관리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과숙아는 어떨까? 엄마 배 속에서 오래 있었다면 더 발달한 상태로 태어날까? 그렇지 않다. 과숙아 역시 여러 문제가 있다. 40주가 넘어서면 태반의 기능이 쇠퇴하기 때문에 자궁내 환경이 점점 열악해져서 산소나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다. 결국 생명이 태어날 때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세상에 나오는 순간 탯줄은 끊어지고 아이는 엄마와 분리된다. 본격적인 개별화는 아이가 스스로 걷게 되는 12개월이 지나면서 이루어진다. 아이는 스스로 이동하는 능력을 획득하면서 자신의 개별성을 좀 더 인지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변 환경을 탐색하면서 본격적으로 애착대상과의 분리를 시도한다. 아이는 양육자와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애착 욕구와 스스로 세상을 경험하려는 탐색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혼란과 불안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애착대상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이의 혼란과 모순된 욕구를 잘 받아줘야 한다. 애착대상과 떨어지려는 것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억지로 붙잡아두거나 애착대상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감정적으로 밀쳐내서는 안된다.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아기의 애착손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애착손상이 빚어낸 자아발달의 왜곡과 인간관계의 문제는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럴 때 유용한 개념이 바로 '바운더리'이다. 바운더리가 건강한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어떤지 알아보자. 건강한 인간관계란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하지만 서로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건강한 바운더리의 다섯 가지 기능은 첫째 관계 조절 능력이 있다. 이들의 바운더리는 유연하다. 이들은 대상과 친밀도에 따라 그 깊이와 거리를 조율하며 관계를 맺는다. 둘째, 상호존중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기존중감 뿐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기에 상호적인 관계를 맺는다. 셋째, 이들은 상대의 마음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 이들은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실천적으로 공감할 줄 안다. 넷째, 이들은 갈등 회복력이 높다. 이들은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 이들은 갈등을 만들지 않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풀어냄으로써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한다. 다섯

째,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이들은 자신의 마음에 바탕을 두고 표현한다. 단,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거친 솔직함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한 부드러운 솔직함이다. 바운더리를 제대로 세운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도, 폐쇄적인 것도 아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늘 거리를 두겠다는 결심과도 다르다. 바운더리가 건강하면 관계는 내 편이 된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은 바운더리의 다섯 가지 기능을 되새기며, 진짜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관계 연습을 시작해 보자.



Goodbye COVID-19, '여러분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박수미
(항공서비스과 학과장)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경제시장은 휘청거리게 되었고 직격탄을 맞은 항공 산업도 어려움에 처해있다.

코로나19와 같이 우리나라 항공수요에 영향을 주었던 2003년의 SARS(사스), 2009년의 신종플루 그리고 2015년의 MERS(메르스) 등의 전염병 때도 지금까지 어렵지는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은 그 때와 너무나도 다르다. 일부국가 혹은 일부 노선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계 대유행으로 번지며 항공수요가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

기 때문이다. 한국항공공사 및 인천공항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3월 기준 국제선의 경우 95%, 국내선의 경우 67% 감소한 수치를 보이며 일 년이 지난 2021년 현재에도 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결국 FSC(Full Service Carrier)와 LCC(Low Cost Carrier)에서는 유휴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가며 비용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항공사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장기간 어려움에 처할 거 같은 항공업계에 대한 불안감으로 항공과에 지원하기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졸업생들조차 담혀버린 항공사 취업문에 그동안 준비한 역량을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다국적 컨설팅 회사인 McKinsey & Company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하반기부터는 국제선 노선의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항공 수요는 폭발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예측은 곧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무엇일까? 요즘 유행하는 아이돌의 노래 중 '롤링' 이 역주행 곡으로 유명하다. 가수인 브

레이브걸스는 자신들의 음악이 흥행하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각자 취업을 위해 직업을 전환하려는 시점에 우연한 기회에 곡이 역주행을 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들에게 '갈색병'으로 유명한 화장품을 생산하는 세계적 기업인 에스티로더의 창업자 에스티로더 여사는 자신이 이용하는 헤어샵 원장의 제안으로 헤어 살롱의 작은 코너에서 직접 만든 화장품을 손님들 얼굴에 발라주며 제품을 판매하였다. 그녀는 어느 날 멋진 옷을 입은 여성고객에게 옷을 어디서 샀느냐고 질문을 하였고 그 여성고객은 '그런 건 왜 물어요? 어차피 비싸서 살 형편은 아닌 거 같아 보이는데..'라고 무시하였다. 그 이후 에스티 로더 여사는 앞으로 그 누구도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성공하리라 다짐하게 된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례가 인생의 전환점

에 필요한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첫째 '역주행'은 '행운'이다. 행운은 늘 우리 옆에 따라다닌다. 단지 손 안에 행운이 잡힐 때까지 견디는 자만이 쟁취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에스티로더 여사의 경우는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노력'이다. 우리의 삶은 어쩌다 잡히는 '행운'보다 한결 같은 '노력'이 더 절실하다.

코로나19의 괴로운 긴 여정으로 지쳐가는 여러분들이 곧 만나게 될 행운과 노력에 응원한다.



다행이다 엄마가 내 엄마라서

이은진 (웨딩플래너전공)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우리엄마,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정말 다행이다. 이름만 들어도 딱딱해지는 그 이름 '엄마' '엄마'라는 한 단어는 우리에게 많은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게 한다. 이 단어를 떠올리면 몽클함과 미안함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책 차례만 봐도 저자와 엄마의 추억을 글로 남겼음을 알 수 있다. 다행이다 엄마가 내 엄마라서 의 저자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슬픔에 빠져서 힘들었던 엄마를 보며 문득 '그 어느 날엔가 엄마를 떠나보낸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생각했다. 나의 엄마, 아빠는 내 곁에서 영원히 나를 지켜주실 것만 같은데 세월이 지나고, 기력이 떨어지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저자는 자신의 유년시절부터 학창시절

을 지나 지금까지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엄마와의 추억을 글로 남겼다. 저자의 어린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들이 하나하나씩 꼬집어내어지는 속에서 엄마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하게 각인되는지, 엄마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키워나가는데 있어 얼마나 따뜻함을 품어내고 있었는지 소소하지만 그러나 또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일상들이 적혀있다. 소소한 대화부터 큰 시련에 빠졌던 이야기까지.. 늘 주시는 사랑에 비해 미안하다고만 하는 엄마 아빠 이야기, 뭐가 그래 미안하실까 우리에게 빛 진거도 없는데 오히려 우리가 돌려드려야 하는데.....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커서는 큰 그 깊이만큼. 점점 엄마를 느끼게 되는 저자의 마음이 가까이 느낄 수 있다. 역척같이 살아오는 우리네 엄마들은 어찌 이리도 희생하는 것은 같은지 지금에서야 짧은 시절의 우리 엄마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해 진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엄마가 그림고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물음 하나에 시작된 [다행이다 엄마가 내 엄마라서] 책에서 작가의 어린 시절 여러 단편적인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직 엄마와 가족들만의 스토리로 어느 누가 봐도 공감되고 금방 동화되어 함께 웃고 울게 만든다. 저자는 어린 시절, 곱디고운 엄마 얼굴이 아닌 할머니를 닮아 외모 스트레스를 받았다. 한복을 입고 학교 행사에 참여한 엄마는 선녀처럼 정말 아름다웠다. 나도 초등학교 시절, 엄마가 학교에 오면 반 친구들이 '엄마 맞아?' 물어볼 정도로 젊고, 아름다웠다. 어렸을 땐 엄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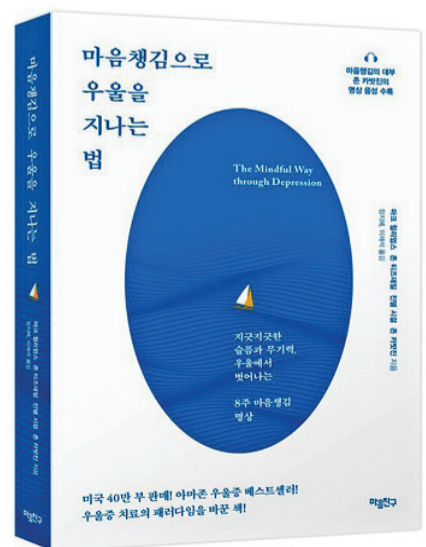
젊은 모습 그대로 계속 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주름도 늘고, 기력도 예전만 못하다. 그때 젊고, 고왔던 우리 엄마... 초등학교 입학식은 가족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날이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부모님이 모두 오셔서 예쁘게 사진도 찍어주시고, 짜장면을 먹었던 기억도 난다. 저자는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용돈을 받지 않았지만, 늘 맛있는 엄마가 만들어준 간식이 기다리고 있어 든든했을 것이다. 엄마는 그때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든 내색 없이 언제나 밝고, 행복해했던 우리 엄마. 세 딸 가운데 장녀인 저자에게 사실은 바로 아래 남동생이 있었다고 한다. 어린 남동생이 차 사고로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던 시연을 읽으며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는데 저자의 부모님의 마음은 더 아팠겠지... 저자는 20대에 항암치료를 하며 많은 고생을 했고, 세월이 지나 아빠와 엄마도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와서 수술을 하셨다

고 한다. 가족은 늘 내 옆에서 오래오래 살아갈 거라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어떻게 떠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할 때면 지금 이 시간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한없이 감사하게 느껴진다. 이 책을 통해 나의 어린 시절을 다시 추억하고, 엄마 아빠에게 새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가 내 엄마라서 정말 고마워요. '엄마'라는 단어를 들을 때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한편, 미안함과 슬픔, 고마운 마음이 동시에 든다. 엄마가 내 엄마여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5월은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는 이 책을 추천 받았고, 글 한편 읽는 동안 가슴이 뭉클해지며 엄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가정의달 맞아 추천받은 책 [다행이다 엄마가 내 엄마라서] 책을 추천 해 주고 싶다.



마음챙김으로 우울을 지나는 법

김시은 (간호학과)



내가 소개해드릴 책은 마크 윌리엄스의 마음챙김으로 우울을 지나는 법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크게 '저자의 예민함 관심 계기' '예민함 실제 사례 및 극복사례' '예민성 에너지 활용 및 긍정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기'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 책의 필자는 상담의 과정에서 마음챙김 기법을 자주 사용한다. 특히나 우울이 있는 분들에게는 마음챙김이 가진 알아차림, 탈동일시 그리고 수용적인 기법은 내담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치료 기간이 짧게 단축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책은 이러한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방향으로 저술되어 있습니다. 마음챙김이 그만큼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수있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치료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읽기에 편안하게 작성된 것이 마음에 든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

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다. 나 역시 그런 사람 중 한명으로써 이 책이 많이 와닿았던거 같다 안그래도 내가 이번 부산여대 오기전에 대학교 하나를 졸업하고 온지라 남들보다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에 혼자 생각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울한 생각과 함께 감정기복이 심해졌다. 슬픈 일은 자주 나를 방문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더욱 자주 찾아오는 슬픔이란 감정은 회피하고 싶으면서도 자연스러운 감정기복에 어떻게든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각박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다. 살면서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일들은 사람들을 더욱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몰아치게 만든다.

마음챙김으로 우울을 지나는법 中 "우울한 기분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 조금 더 지혜롭게 지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아닐까?"라는 문장이 있다. 이 말이 제일 현실적으로 와닿는다. 내가 지금 대학을 두 번왔는지는 아무도 신경 안쓴다는것이다. 지금 내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집념하고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는 생각을 한다. 마음챙김으로 우울을 지나는 법'을 읽고 제 자신이 지금 현재 놓인 상황의 감정을 내려두고, 일깨우고, 감정을 추스르는 법을 배우며 무작정 책을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저를 일깨우고 읽는 것 같아 우울하고 무기력한 나를 이 책 하나로 인해 충전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였다.

언어의 온도

박서연 (간호학과)



말과 글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다. 언어에는 따뜻함과 차가움, 적당한 온기 등 나름의 온도가 있다. 세상살이의 지칠 때 어떤 이는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털기도 하고, 어떤 이는 책을 읽고 작가가 건네는 문장으로 위안을 얻는다.

이렇듯 '언어'는 한순간 나의 마음을 뽀뽀 열리기도, 그 뽀뽀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언어의 온도는 몇도인가? 이 책은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는 작가가 남의 말을 유심히 듣는 습관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듣게 된 말에서 깨달은 점을 써 내려갔다.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할머니가 손자에게 "더 아픈 사람이 아픈 걸 알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이 말에 공감의 간 이유는 말처럼 내가 이 아픔을 모르면 상대방에 아픔과 그 깊이를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아픔을 공감해주려면 내가 그 아픔을 잘 알아야 위로가 되고 상대방에게 그 마음이 잘 전달되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의사가 환자에게 환자분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장님,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환자라는 단어가 아픈 사람한테 부르는 호칭인데 환자라고 부르게 되면 각자의 이름보다 아픈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이를 배려해서 부른 것이

기억에 남았다.

나의 꿈이 간호사인데 나중에 환자분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같이 불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1부는 말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요즘 들어 말의 무게감을 많이 느꼈다.

한번 말을 한 것은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책임감도 그만큼 따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다. 따라서 말하기 전에 항상 한 번 더 생각해서 하고 내가 말하기보다는 그냥 들어주는 것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2부에서는 글에서 감동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다. 화장실 문구에 "화장실을 깔끔하게 써주세요. 청소해 주시는 분들도 누군가에게 전부인 사람입니다." 라는 문구가 작가님이 기억에 남았다고 말했는데 나도 인상 깊었다. 가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돕는 것을 당연시 여겨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이를 보고 공공장소를 사용할 때나 도움을 주시는 분에게 나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사람의 행동에서 얻은 깨달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은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안도감이지 행복이 아니다.

안도감은 금방 증발한다고 말한다. 이 말이 와 닿았는데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남보다 내가 더 잘하고 이겨야하는 급급한 사회에 살아가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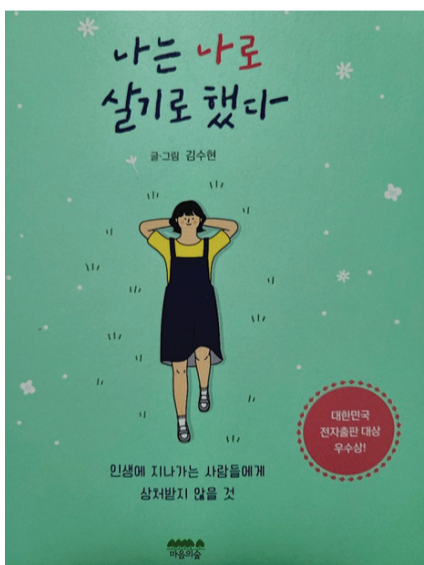
정말 잠시의 안도감이지 영원히 지속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의 한계를 계속 이겨내고 싶다.

우리는 끝없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고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책은 자신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한 말과 같이 세상의 언어의 온도가 5월의 봄처럼 따뜻해지면 좋겠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유효경 (간호학과)



이 책은 어른이 된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응원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다.

한참 인간관계에 힘들어할 때 선물 받은 책인데 이 책을 읽고 많은 위로와 응원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특히 나는 Part 1인 '나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to do list'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위로를 받은 거 같다. Part 1에는 많은 목차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내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 '나를 평가할 자격을 주지 않을 것' 이 목차들을 읽고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 자신에게 신경을 못

쓰고 그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았던 과거를 생각하며 위로를 받았다.

항상 남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남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 또는 나를 무시하고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내 감정을 속이면서 행동을 한 적이 있곤 하는데 '내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 이 부분 마지막에 "저열한 인간들로부터 스스로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최소한의 저항이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읽자마자 머리 한 대를 통하고 맞은 기분이었다.

우리는 남들 시선에 너무 신경 쓰고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하여 가끔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들 눈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거 같다는 생각을 했다.

'불안에 불잡하지 않기 위한 to do list' 라는 제목을 가진 Part 3에서는 '힘이 들 때 힘이 든다고 말할 것'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이 부분에는 "힘이 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감정을 묶어두면 자신에 대한 감각은 무뎠다."

그 무뎠진 감각은 다른 감정들도 무디게 만들고, 스스로가 한계점에 부딪히는 것도 모른 채, 착취되는 자신을 방치하게 된다.

그렇기에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상황은 변함없더라도 힘이 들면 힘들다고 투정 부려야 하고 못 버티겠으면 잠깐은 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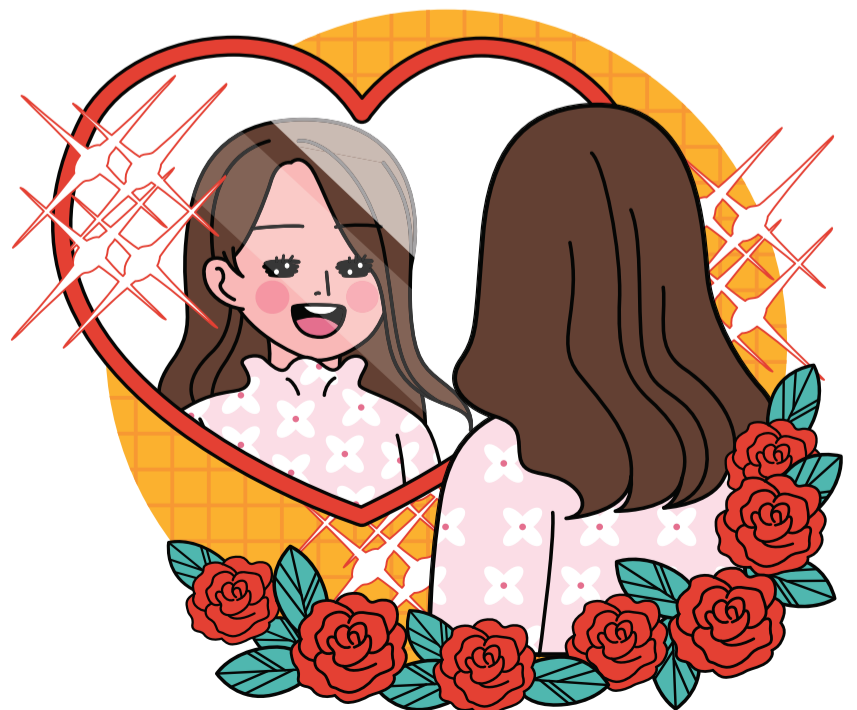
춰 설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힘이 들 때 다른 사람한테 잘 말하지 않는 성격이다. 내가 이걸 말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인데 과연 내 힘듦에 공감을 할까? 위로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 사람까지 힘들까 봐 말을 잘 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편이다.

이렇게 내가 힘든 걸 나 혼자 끝까지 안고 가다 보면 언제 어디서 그 힘듦이 폭발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안고 간다기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털어놓고 조금의 위로라도 받으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기에 저 부분을 읽고 앞으로는 나도 힘든 일이 있으면 주위 사람한테 속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무기력하게 있는 사람 또는 자존감이 낮거나 인간관계에 치이고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이 이 책을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다.



스윗 프랑세즈

이혜인(웨딩플래너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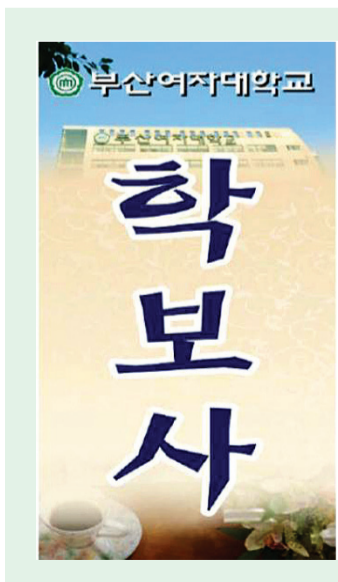


오늘 소개할 영화는 스윗 프랑세즈라는 영화이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 1940년, 주인공 '루실 안젤리어'는 남편이 전쟁 때문에 집을 떠난 후,

시아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여자이다. 특정한 직업이 없어도 지주 집안인 덕분에 동네를 돌아다니며 집세를 받으며 살고 있다. 그래서인지 동네 주민들은 루실 가족을 불편해하는 눈치, 루실이 사는 곳은 프랑스 '뷔시'라는 동네로써, 아직 독일군이 들어오지 않은 시골이었다. 파리처럼 큰 도시가 아니니 관심을 거라 생각했지만, 갑자기 독일군이 점령하면서 도시 분위기도 바뀌었다. 독일군은 계급에 따라 뷔시 주민들의 집에 얹혀살았다. 그중에서도 장교였던 '브루노 본 포크'는 루실 저택에 머무르게 되고 불편한 적군과의 동침이 시작된다. 브루노는 부인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 물건들을 소중히 다루겠다고 하는 등 젠틀한 모습을 보인다. 루실은 전쟁터로 나간 자신의 남편을 그리워하며, 자신을 묶어매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며 자연스레 브루노에게 거리를 두고 살게 되지만, 유일한 낙이었던 피아노를 시어머니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아노를 잠궈버

린다. 그러나 브루노가 그 방을 쓰게 되면서 피아노를 다시 열었고, 그는 이름 모를 아름다운 곡을 연주했다. 나름 음악을 공부했던 루실은 브루노를 경계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에 귀 기울이곤 했다. 루실은 고요하던 집에 나타난 그로 인해 위로를 느낀다. 후에 이들은 정원에서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데, 루실은 이때 브루노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 점차 가까워지는 브루노와 루실, 그리고 이들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시어머니, 루실은 여성과 마음 사이에서 큰 갈등을 하는데, 마음의 문을 거의 다 연 그 순간 마을 주민이 독일군 장교를 살해하는 일이 일어난다. 독일군 장교였던 브루노는 명령에 따랐고, 마을 사람들을 수색하며 용의자를 찾아나선다. 하지만 큰 갈등을 겪었던 루실은 끝내 용의자를 숨겨주며 사랑을 저버리고, 결국 이들의 사랑은 행방을 알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영화의 결말은 끝나게 된다. 이 영화를 보고 느낀점은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

이 애틋하면서 아린 느낌을 받았는데 이들의 사랑이 극도로 절제되었기 때문일 것 이라고 생각한다.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적이라는 이성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오가면서 사랑 또한 불같이 달아오르다가도 이내 다시 차갑게 식어버리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묘한 느낌을 받았다. 영화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대사가 나오는데 '우리 서로의 감정을 단 한번도 말하지 못했다. 사랑이란 한마디 초차도, 전쟁이 끝난 후 그의 사망소식을 들었다. 어쩌면 그는 그냥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나처럼...' 루실의 이 마지막 대사는 사랑이란 말 한마디 없이도, 감정표현 한마디 없이도 사랑이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너리에 박힌 대사들처럼 나또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에 빠진 영화이기도 하다 정말 사랑이란 감정은 알다가도 모를 감정인 것 같다고 느끼게 되었다.



편집후기 2021년도 첫 신문인 244호 신문 작업을 하게 되었다. 역시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제한되는 것도 많고 신문 작업을 하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1학년 신입기자들과 2학년 기자들이 함께 만드는 신문 작업이기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다. 여러 어려움과 불편함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하나의 신문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어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1학년 신입기자들과 2학년 기자들이 열심히 만들어 낸 신문이기에 이번 244호 신문은 유익하고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는 신문이었으면 좋겠다. 이혜인 기자



원고모집 학보사에서는 학우들의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수필, 시, 비평문, 기행문, 사진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학우들의 글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 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출처 : 학보사메일 - hakbo@bwc.ac.kr / Tel:051.850.3296



신문 후기 모집 학보사에서는 교내 신문의 발전을 위하여 학우 여러분들의 신문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좋았던 기사, 아쉬웠던 점 등에 대한 후기를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한글문서로 500자 내외의 글을 연락받을 휴대폰 번호와 함께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선정된 글에 대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학보사메일 : hakbo@bwc.ac.kr